

몬스테라

수수

분명 세영이 몇 달 전에 나눔 했던 플라스틱 그릇이었다. 십 년도 전에 유행해 이제는 자취를 감춰버린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노란 접시였다. 캣맘을 잡는다는 전단지 사진에서 세영은 단번에 그 그릇이 자기 것이었음을 알아차렸다. 양쪽으로 튀어나온 곰돌이 귀 중 왼쪽 코팅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단지를 발견한 곳은 세영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H아파트 단지 안이었다. 이 동네에 5년이나 살았지만, H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낮 시간에 산책할 곳을 찾다가 들어오게 된 대단지 아파트였다. 쓰레기장 기둥에 붙어 있는 전단지에는 곰돌이 그릇 사진과 함께 고양이 밥 준 사람을 잡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캣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미 있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세영이었지만, 전단지 작성자의 분노가 느껴지는 문구와 자신이 나눔 한 그릇 사진을 보면서 몸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댓글 동참!!! 문구 밑에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찍어 연결된 링크를 막 누른 찰나, 뒤에서 거친 인기척이 느껴졌다. 마치 제 발로 사건 현장에 나타난 범인처럼 세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티를 내지 않으려다가 어깨를 움찔했다.

- 뭐 짚이는 데라도 있어 아가씨?

오십 대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다. 아뇨, 저는 처음 봤어요. 세영이 엉거주춤한 시선 처리를 하며 대답하자 사내가 말을 이었다.

- 아주 저 캣맘인가 뭐시기 때문에 여간 골치가 아냐. 아가씨도 거기 들어가서 댓글 좀 달아봐.

사내는 전단지의 QR코드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대답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목소리로 에... 하고 성급히 자리를 뜨려는데, 세영의 뒤통수에 사내가 다시 말을 걸었다.

- 근데 아가씨는 몇 동이야?

세영은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했다.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땅만 보고 빠르게 걸었다. H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와서야 세영은 고개를 돌려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내가 캣맘도 아닌데 왜 이러지. 플라스틱 그릇 때문인가. 이 아파트에 안 살아서인가. 세영이 다시 핸드폰을 꺼자 아까 찍었던 QR코드 링크 창이 열려 있었다.

위곡지구 11단지 H아파트 입주민 카페였다. 아파트는 이런 온라인 카페도 있구나 생각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1105동 안전제일'이었다.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전단지와 비슷했다. 34초짜리 영상도 하나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검정 비닐과 청테이프로 친친 감겨진 스티로폼 박스와 낡은 의자, 널브러져 있는 플라스틱 물품들이 찍혀 있었다. 1105동 안전제일은 캣맘이 만행을 저지르며 아파트 단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에게 입대의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대의는 뭐지. 생각하는 세영의 눈에 파란색으로 볼드 처리된 글자가 들어왔다.

만일 캣맘의 불법행위가 근절된다면

소유주분들은, 우리 대장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없어져 좋을 것이고
세입자분들은, 보다 더 쾌적하고 청결한 단지에서 거주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문구였다. 게시글에는 총 24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작성자의 의견에 격하게 동의하는 글 바로 밑에는 어김없이 1105동 안전제일의 답글이 있었다.

1101동 해피맘: 자기 집에서 밥주고 똥치우고 키우세요. 제발요~ 동참합니다!

-1105동 안전제일: 정말 백 번 들어도 옳은 말입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9동 쏘맥: 심각하네요. 정말...

-1105동 안전제일: 저 영상은 빙산의 일각이며 단지 곳곳에 고양이 분노 자국이 엄청 많습니다. 저런 사료는 지난 여름 저희를 불쾌하게 만든 바퀴벌레의 먹이이기도 하지요.

1107동 자연사랑: 고생하시네요~ 동의 댓글 남깁니다. 제발 그분 이사 좀 가셨으면...

-1105동 안전제일: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저희 단지처럼 고양이 방목사육에 최적화된 곳을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 않겠죠. 입주민이 아닌 외부 침입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감시하고 관리주체에 요청해서 이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방어하는 길만이 우리 단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영은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인가 싶다가도,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느새 세영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까지 도착해 있었다.

#

분명히 내 거 맞는데. 세영은 자신의 중고마켓 앱에 들어가 자신이 올렸던 게시글을 찾았다. 채팅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으면 누구에게 나눔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세영은 나눔 거래가 완료되면 채팅창을 나가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누구랑 어떤 대화가 오갔었는지 기억해 내지 못했다. 집 안 물건을 하나 둘 비워내기 시작하면서 세영은 중고마켓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36.5도씨로 시작한 세영의 중고마켓 매너 온도는 73도까지 올라 있었고, 세영은 이를 99도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했다. 최대 한계치까지. 세영은 거래완료 처리되어 있는 판매 물품 목록 스크롤을 한참 내리다가 곰돌이 플라스틱 그릇을 찾아냈다. 아 내가 이것도 나눔 했었지. 할 만한 새 물건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

안 쓰는 그릇 나눔 합니다. 새거도 있고 사용감 많은 것도 있어요.

예민하신 분은 피해주세요. 문고리 거래만 합니다.

받은 후기를 누르니 '몬스테라'님이 보낸 따뜻한 후기가 도착했어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몬스테라? 아이디 이름을 보면서 세영은 창가에 둔 자신의 몬스테라 화분을 쳐다보았다. 중고마켓 앱에는 이웃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세영이 몬스테라를 검색하자 열다섯 명이 넘는 몬스테라 아이디가 등장했다. 위곡동 몬스테라만 아홉 명, 나머지는 창지동, 잠곡동, 세명동이였다. 지금으로서는 누가 곰돌이 그릇을 나눔 해 갔는지 짐작할 방법이 없었다. 왜 저렇게 입주민이 반대하는 데 사료를 두는 거지? 저 아파트 말고는 둘 데가 없나? 언제부터 밥을 줬을까? 사람들에게 잡히면 큰일 날 텐데. 세영은 자신도 모르게 캣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헷갈렸다. 최근에 봤던 캣맘 폭행 관련 기사도 떠올랐다. 파도같이 요동치는 세영의 머릿속에 생각할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다. 세영은 창가에 둔 몬스테라 화분에 물을 주었다. 튼튼한 몬스테라의 줄기 옆에서 가느다랗고 길게 말려진 새순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 오늘이 3회차예요, 세영씨.

상담사는 웃으면서 세영에게 안부를 물었다. 상담실의 공간이 지난주에 비해 아늑하게 느껴졌다. 세영이 시에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을 한 것은 도저히 정신과에 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약을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꽤나 나간다는 상담 비용을 낼 자신이 없었다. 세영은 반년 전쯤 의류 기업에서 퇴사했다. 매달 말이면 어김없이 집주인에게서 오피스텔 월세 납부 문자가 왔다. 입출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빠르게 줄어들자 세영은 뭐라도 해야겠다고 싶었다.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세영은 울 게 왔구나 싶었다. 상담사를 만나기 전 세영은 온라인으로 사전 심리검사인 간이정신진단검사와 기질 및 성격검사를 마쳤다. 세영에게 배정된 상담사는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상담사는 세영에게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했다.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과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었다. 가족과의 관계, 유년 시절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다고 된다고 했다. 세영이 머뭇거리거나 잠시 침묵을 해도 별다른 말없이 그녀를 기다려줬다.

-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세영씨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 너무 많은 옷들, 물건들, 잡동사니, 쓰레기가 힘들게 해요.

-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 퇴사하기 몇 개월 전쯤인 거 같아요.

세영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패션회사 홍보팀에서 일했다. 회사는 자체 패션 브랜드와 수입 패션 브랜드를 이십여 개 보유하고 있었다. 저렴한 라인의 SPA 의류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론칭하고, 코스메틱 분야에도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세영은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했고, 실무를 맡아서 하는 홍보대행사와의 긴밀하게 소통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세영이 해야 할 업무는 더욱 촘촘해졌다. 피드백을 하거나 빠르게 컨펌해야 할 자잘한 일들도 많아졌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인플루언서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세영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배로 늘었다. 예전처럼 하나의 일관된 트렌드가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 기업을 넘어 개인도 트렌드를 만들었고, 대부분 빠르게 생명력을 잃었다. 브랜드별 재고가 넘쳐났지만 회사는 새로운 옷들을 계속 생산해냈다. 80% 세일을 해도 원가는 충분히 남으니까. 회사는 남는 재고를 백화점 세일, 매장 세일, 온라인 세일, 패밀리 세일, 창고형 세일, 수출, 소각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진시켰다.

그해 방송대상을 받은 다큐를 세영이 본 건 인사고과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패스트패션을 넘어선 울트라패스트패션 시장의 암면을 다룬 50분짜리 다큐멘터리였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생산되는 옷은 약 천억 벌이며, 삼백삼십억 벌이 같은 해에 버려진다고 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옷의 95%는 해외로 보내지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헌 옷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라고 했다. 의류산업에 한가운데 종사하는 세영이 애써 모른 척 하고 싶어 했던 정보들이었다. 버려진 옷들은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팔려나갔다. 그곳 의류 시장에서도 소화하지 못하는 절반가량의 옷들은 버려지거나 소각됐다. 가나 아크라의 칸타만토 시장 주변에는 옷무덤이 가득했고, 소들은 그 위에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 섬유를 질경 질경 씹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 마을인 케라니간지의 운하는 공장에서 버려진 자투리 천과 버려지는 옷들 때문에 메말라 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고. 직장 선후배의 물음에 세영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협업 부서와 미팅을 하거나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 자주 멍해졌다. 간편해야 할 메시지와 메일에도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광고 집행에 대한 주요 회의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새 옷 디자인을 보아도 설레지 않았고, 모델들의 화보 촬영장도 더 이상 눈요깃거리가 아니었다. 회사의 의류창고에 가면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과호흡이 왔다. 세영의 유튜브 피드의 알고리즘은 파리의 패션 위크, MZ유행아이템, 신인모델, 비즈니스룩, 핫템, 꾸안꾸를 더 이상 띄우지 않았다. 대신 미세플라스틱, 바다 괴생명체, 음식물 쓰레기의 진실, 리사이클링의 배반, 지구 온도 임계점에 대한 영상들이 가득했다. 세영은 인사고과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몇 주 동안은 밖에 나가지 못했다. 배가 고프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되게 생활했다. 잠이 오지 않은 새벽, 말라가는 몬스테라를 보고 세영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좁은 오피스텔 주방에 쌓여 있는 일회용 용기 앞에 쪼구리고 앉아 한참을 껌소리 내어 울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일회용품을 모두 내다 버렸다. 집에 있는 물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물건이 너무 많았다. 옷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팬츠는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 앱에 올렸고, 팔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물건들은 나눔 하기 시작했다.

식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를 멈췄음에도 세영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다. 오피스텔 월세 때문이었다. 세영은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했다. 세영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투명 뚜껑, 노란 빨대, 사람들이 한 움큼 집어가는 일회용 물티슈,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재활용품을 옥여 넣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세영을 견딜 수 없게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세영이 일을 한 곳은 코다리점 가게였다. 여기는 음식점이니까 카페처럼 일회용 용기를 많이 쓰진 않겠지. 세영은 생각했다. 코다리점 가게는 점심때면 위곡지구 지식산업센터 회사원들이 웨이팅까지 하며 찾는 곳이었다. 빠르게 주문을 받고 복잡한 상차림을 해야 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코다리점 가게 테이블에는 일회용 비닐이 깔려 있었는데, 손님이 자리를 뜨면 대충 그릇과 수저만 건져내고 비닐을 뭉쳐서 버리는 식으로 일을 했다. 세영이 집게로 음식물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을 건지고, 일회용 물병을 빼내자 이모라고 불리는 여자가 말했다.

- 아휴 그렇게 다 건져서 언제 다 일해. 그냥 그릇이랑 수저만 빼고 이렇게 휙 말라고. 비닐 찌로 뭉쳐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르바이트도 오래 이어가지 못한 세영은 그야말로 무직 상태가 됐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서너 달은 더 버티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았다. 제대로 된 일을 다시 구하거나, 보증금이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세영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개였다.

상담사는 세영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자료를 보며 불안, 공황발작, 강박, PTSD에 대한 수치가 꽤 높게 나왔다고 했다. 정신과로 가야 하나요. 세영이 문자 상담사는 안심하라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 세영씨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

세영이 집중할 수 있는 일은 몬스테라 잎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세영의 몬스테라는 텔리

시오사였다. 일반 가정집이나 가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몬스테라 종이었다. 위쪽지구 오피스텔에 처음 입주했을 때 회사의 친한 동료가 세영에게 준 선물이었다. 지름 2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정도의 화분 중앙에는 굵고 건강한 몬스테라 줄기가 심겨 있었고, 세장의 싱그러운 잎이 자라고 있었다. 세영은 몬스테라를 돌보는 데 재주가 있었다. 그동안 다육이, 스투키, 홍콩야자, 고무나무, 스킨답서스 등 그나마 키우기 쉽다는 식물들을 제 손으로 키워봤지만 세영의 손에서 몇 해를 넘긴 건 몬스테라가 처음이었다. 세영은 몬스테라의 갈라진 이파리와 군데군데 길게 뚫려 있는 구멍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새 잎과 공중뿌리가 자라나면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수증재배를 했다. 물에서 자란 어린 몬스테라가 새끼 뿌리들을 열심히 내리면 적당한 시기에 작은 화분으로 옮겨 심었다. 몬스테라의 생명력은 정말 몬스터 같았다.

분갈이가 필요한 시기였다. 가장 굵은 가지의 몬스테라에는 열 장이 넘는 잎이 자라고 있었고, 지금의 화분은 아무래도 작아 보였다. 오피스텔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화훼단지があった지만, 이 더운 날씨에 무겁고 큰 화분을 들고 돌아올 자신은 없었다. 세영은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오피스텔 건너편 상가에 있는 다이소로 향했다. 다이소 원예 코너에는 씨앗, 상토, 배양토, 자갈, 플라스틱 돌, 영양제, 비료, 지지대, 원예 도구, 장갑 등 다양한 용품이 가득했다. 물건 종류만 해도 백 가지가 넘었고, 가격도 저렴했다. 세영은 물건의 다양한 종류에 압도당해 어지러움을 느꼈다. 마음에 드는 화분은 없었다. 가장 큰 사이즈 화분은 모두 다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오천 원짜리 플라스틱 화분을 잠시 만지작거리다 내려놓았다. 세영은 불현듯 관심사가 바뀌었는지 반려동물 코너로 갔다. 국내 대기업의 닭고기를 원재료로 HACCP 인증 팻푸드 전용 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고양이 사료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세영은 셀프 계산대로 가서 카드로 오천 원을 결제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세영은 사료의 왼쪽 귀퉁이를 가위로 자르고, 기다린 플라스틱 집게로 입구 부분을 밀봉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나눔 게시글을 올렸다. 고양이를 키우지 않지만 거짓말을 했다. 모든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고양이 사료 나눔 합니다.

다이소에서 오늘 산 고양이 사료예요. 우리 냥이 입맛에는 안 맞나 봐요.

몇 알만 꺼내서 거의 새 거입니다.

문고리 거래합니다. 채팅 순 아니니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세영은 종종 꽤 괜찮은 물건들을 나눔 해왔다. 처음 몇 번은 채팅을 제일 먼저 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었다. 그런데 일단 채팅으로 말부터 걸어오고 거래 당일 잠적하거나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나눔 글을 올리자마자 채팅으로 세영이 올린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안 되냐고 물어왔다.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해서 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물건이나 필요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갔다. 세영은 자신의 물건이 누군가의 공간으로 이동해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상상하자 현기증이 났다. 세영은 나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짧은 신청 글을 남기면, 본인이 거래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30분 만에 3명의 신청자가 사연을 보내왔다.

냥집사: 안녕하세욧! 저희 집 냥이가 잘 먹을 거 같아서 신청해 보아욧.

츨르: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가 즐겨 먹는 사료예요. 꼭 나눔받고 싶어요.

몬스테라: 고양이 밥 나눔해 주시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어, 몬스테라다. 세영은 채팅을 걸어 말을 했다.

-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위콕드립하이오피스텔 804호예요. 전에 그릇 받으셨던 분인 거 같네요 ^^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차 싶었다. 괜히 그릇 얘기를 꺼냈구나 생각했다.

- 아, 네네. 감사합니다. 문 앞에 두시면 한 시간 내로 찾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 네, 호출하시면 공동 현관문 열어드려요. 꾸벅(이모티콘)

세영의 심장이 쿵쾅됐다. H아파트 캣맘의 정체를 본인만 알게 될 생각에 몸이 살짝 달아 올랐다. 아무것도 세영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세영은 그녀의 존재를 왜 확인하고 싶은 건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세영은 화분 앞에 쫓그려 앉아 한참 동안 몬스테라를 바라보았다. 제 몸에 맞지 않은 화분에 심어진 풍성한 몬스테라가 갑갑해 보였다. 길게 튀어나온 공중뿌리 하나를 흠 속으로 묻었다. 단단한 줄기와 두꺼워진 잎, 제각기 찢어진 이파리들, 타원형 모양 구멍, 아직 반쯤 말려 있는 새 잎까지 찬찬히 바라보았다. 정적을 가르듯 공동현관 호출이 울렸다. 화면 앞에는 흰 반팔 티를 입은 앳된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

우진은 거짓말을 못했다. 그게 우진의 의지인지 아니면 모계 쪽 유전에서 온 태생적인 성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녀의 두 달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 안에서 우진은 탄생했다. 우진의 아빠는 사 남매의 막내아들이었다. 모친은 생존력이 강한 여성이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세탁소를 지키며 사 남매를 키워냈으니까. 억척스럽다는 말을 들어가며 막내가 군대를 갈 때까지 쉬는 법을 몰랐던 할머니가 이제 막 허리를 펴 무렵, 막내아들은 본인보다 더 어린 아내를 데리고 세탁소를 찾아왔다. 그리고 우진이 막 걸음마를 떼려던 시기에 돈을 벌겠다며 한국을 떠났다. 그곳이 중동인지 중국인지 할머니는 알 도리가 없었다. 젊은 엄마는 힘들고 외로웠다. 매달 남편이 보내오는 생활비가 있었지만, 갓 스무 살을 넘긴 그녀에게 우진은 버거운 존재였다. 아빠가 중동으로 떠난 뒤, 우진은 친할머니에게 자주 맡겨졌다.

- 우리 새끼. 불쌍해서 어쩔꼬. 니 애미 애비는 사람도 아니다. 우진이는 그래도 누가 좋노. 애미요 애비요.

우진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할머니는 세탁소 바닥을 헤매며 옷에 걸친 비닐을 갖고 노는 우진에게 물었다. 그럴 때면 우진은 할미요. 하고 대답했다. 우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그의 인생에서 엄마와 아빠는 알코올 증발하듯 흔적 없이 사라졌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아빠의 커다란 트렁크에서 손가락 길이만 한 작은 양말 한 짝이 섞여져 나온 것이 화근이었다. 엄마는 아빠가 타지에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식을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년이 누구인지, 애새끼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야겠다고 먹살잡이도 했다. 아빠는 타지에서 힘들고 외롭게 돈 벌어난 사람한테 헛소리를 한다면 소리를 질렀다. 애 있는 동료의 빨래가 섞인 거 같다. 왜 내 집에 이런 게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게 애 양말인지도 나는 모른다. 아빠의 주장은 완고했지만 엄마는 거짓말이 제일 싫어!!! 하며 고성을 내지르고 물건을 내던졌다.

우진은 차라리 아빠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생각했다. 엄마나 아빠나 한 쪽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우진은 할머니를 택했고 그렇게 할머니의 세탁소에 남겨졌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가리지 않고 욕을 해댔지만 우진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애미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끼니 거르지 말고 두둑하게 먹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의식주에 있어서는 여느 집 부럽지 않게 자랐다.

- 우리 새끼. 내가 없으면 누가 밥을 줄꼬. 우진아. 니가 가서 고양이 밥 좀 주고 와라.

우진의 할머니가 위곡지구 11단지 H아파트 산책로에서 고양이 밥을 챙겨준 건 햇수로 삼 년이었다. 산책로를 지나다니다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캣맘을 보고 좋은 일 하소. 걱려를 했던 게 발단이었다. 언제부턴가 캣맘은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녀를 걱정했다. 캣맘을 기다리며 비워진 사료 그릇을 떠나지 못하는 고양이 무리를 보고 할머니는 결심했다. 캣맘이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아이들 밥을 챙기리라. 캣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할머니는 캣맘이 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할머니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입주민도 있었다. 뒤통수에 대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밥 주실 거면 데려가서 직접 키우세요! 점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양이 밥을 주던 할머니는 결국 어두운 밤에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손전등도 없이 밥을 주러 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관절을 크게 다쳤다. 그 후로 할머니는 바깥 거동이 힘들어졌고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캣맘의 지위에서 내려왔다.

#

주고 왔다고 거짓말을 할 법도 한데, 우진은 그러지 못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면 아파트를 우진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 누가 머라 카든 이 아파트는 니 거여. 그니까 고양이 밥 좀 주고 와라 내새끼. 내새끼가 우진을 말하는 건지 고양이를 말하는 건지 헷갈렸다. 고양이 밥에 대한 할머니 의지는 굳었다. 고양이 밥을 주려고 할머니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같았다. 맘 같아서는 할머니의 자식 같은 길고양이를 모두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싶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하나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우진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대신 고양이 밥을 챙겼다. 11단지 창문 불빛이 거의 사라지는 매일 새벽 3시에 우진은 고양이 밥을 챙기러 나갔다.

우진은 나눔 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반 정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새거로 보이는 사료를 나눔 한다는 글은 처음 보았다. 그것도 500g이나 되는 오천 원짜리를. 희망 거래장소에는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인 오피스텔 위치가 찍혀 있었다. 전에 한 번 가본 곳이었다. 신청자가 많을 거 같아 포기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보냈다. 답장이 왔고 문고리 거래로 사료를 가져가라고 했다. 잘 가져온 후 감사 후기를 남겼다. 그러자 채팅으로 답장이 왔다.

- 잘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조심히 가세요’가 아니었다. ‘조심하세요’였다. 잘못 쓴 것이겠지 우진은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오늘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새벽 3시. 여느 때처럼 우진은 낡은 에코백에 물 한 병과 깨끗하게 씻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두 개, 지퍼백에 든 사료를 챙겼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우진이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는 몇 개의 가로등만이 빛을 내고 있었다. 늘 고양이 밥을 두는 장소로 갔다. 의자와 스티로폼 박스는 모두 사라져 있었고 고양이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형광 주황색의 삼각콘에 ‘캣맘 상습 출몰 지역 CCTV 설치 예정!’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야옹. 가냘픈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우진은 핸드폰 플래시를 키고 작은 소리를 따라갔다. 손바닥만 한 새끼 고양이는 불빛에 눈부셔 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무언가에 찍혔는지 왼쪽 귀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있었다. 우진은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고양이도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은 아파트에서 내쫓겨진 고양이 무리를 상상했다. 위곡지구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그들과 새롭게 나타날 캣맘을 생각했다. 우진은 에코백에서 물건을 꺼내는 대신 새끼 고양이를 들어 올렸다. 너무 가볍고 부드러워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우진은 팔뚝과 가슴 사이로 새끼 고양이를 껴안고 집으로 향했다.

#

세영은 4회차 상담을 마친 뒤, 오피스텔로 바로 가는 대신 화훼단지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오늘은 꼭 큰 화분을 살 생각이었다.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들고 오지. 걱정이 되었지만 직접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다.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도자기 화분 대신 투박하지만 빈티지한 매력을 지닌 토분을 살 계획이었다. 유약 처리를 하지 않아 공기와 수분이 자유롭게 통과한다는 점이 세영의 마음에 들었다. 세영은 자신의 몬스테라에 어울릴 만한 토분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고르고 싶었다.

화훼단지에는 여덟 아홉 곳쯤 되는 화원이 줄지어 있었다. 생화만 파는 가게도 있었고 화초와 다육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도 있었다. 키가 큰 관엽식물들이 시선을 끄는 가게 앞에서, 세영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커다란 황갈색 토분 안에는 생명력 가득한 몬스테라가 심어져 있었다. 세영은 한참이나 그 앞에 서서 몬스테라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들어 가게 안을 바라보니, 식물을 돌보느라 분주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게 유리창에는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힌 A4 종이가 붙어 있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주머니가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말을 건네자 세영이 되물었다.

- 여기, 사람 구하나요?

#